

삼일교회 3대 비전(vision)

1. 선교하는 교회
2.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3.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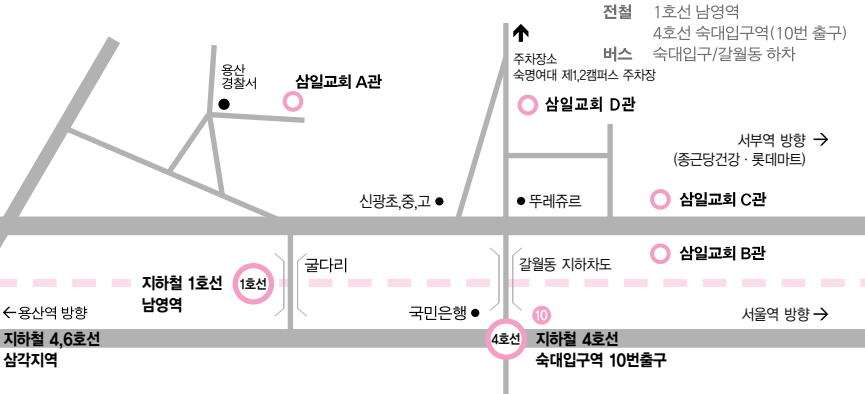
예배 안내

예배	시간	장소 (온/오프라인)	예배	시간	장소 (오프라인)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B관 에덴홀 오프라인	영아1,2세부(부모동반) 영아3세부	오전 11:30	B관 405호 B관 404호 B관 402호 B관 401호 B관 503호 B관 703호
	2부: 오전 9:30	온/오프라인	유아B(4세)부		
	3부: 오전 11:30	온/오프라인 (영어통역 English)	유아A(5세)부 유치B(6세)부		
	4부: 오후 1:15	온/오프라인	유치A(7세)부		
	5부: 오후 3:00	온/오프라인 (일어, 중국어통역)	유년B(1학년)부 유년A(2학년)부		
주일 저녁예배	오후 7:00	온/오프라인	초등B(3학년)부	오전 9:30	B관 1층 에덴홀
주일진예배	오후 2:30 오후 4:30	오프라인	초등A(4학년)부 소년부(5,6학년)		C관 4층 B관 701호
	토요리더예배		오전 11:30 오후 5:00	중등부 고등부	오전 11:30
수요목장예배	오전11:00	B관 2층 분당 오프라인	사랑교육부	각 교육부서	예배 시간 참고
수요예배	오후 7:30		사랑부	오후 1:00	B관 503호
금요기도회	오후 9:00	온/오프라인	서울역사랑나눔부	오후 4:30	B관 401호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국제예배(SIF)	오후 1:30	C관 3층
			새가족등록	주일 1부~5부 예배 직후	B관 5층 새가족부실

4월 예매봉사 위원	4월 대표 기도 순서		4월 봉헌위원	
	2부	3부	2부	박정석 집사
	4월 1주 장구경 장로	김경준 장로	3부	이선호 집사
	4월 2주 김희석 집사	김기준 집사	4부	박노규 집사
	4월 3주 주병옥 장로	윤옥엽 장로	5부	박상규 집사
	4월 4주 송홍운 집사	김승현 집사	저녁	김명준 집사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C관	씨글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2-2197-9315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Tel 02-2197-9316	
	헤세드 상담센터(D관2층)	Tel 02-712-0300	
	삼일수양관_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1-3133	



섬기는 분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10]



주일 1-4부 예배	설교 송태근 목사(사회1부: 성수민 목사 2부: 박성민 목사 3부: 용진호 목사 4부: 최명길 목사)		
	본문 요한계시록 2:18-29		
	제목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헌신기도 2부: 장구경 장로 3부: 김경준 장로		
주일 5부 예배	설교 이요한 목사(사회: 김선민 목사)		
	본문 사무엘상 17:33-40		
	제목 "하나님이 기르시는 인생"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 목사(사회: 조시환 목사)		
	본문 요한일서 3:11-16		
	제목 요한일서강해(10) "사망에서 생명으로(2)"		
수요목장예배	설교 고석창 목사		
수요예배	설교 전정훈 목사		
	본문 로마서 8:12-17		
	제목 "고난 상속 문제"		
금요기도회	설교 송태근 목사(기도인도: 홍준의 목사)		
	본문 창세기 48:12-20		
	제목 "핵심으로 가는 지름길"		
새벽기도회	설교 월: 이의석 목사 목: 김살렘 목사	화: 전정훈 목사 금: 이신애 전도사	수: 이사무엘 목사



삼일교회
SAMILCHURCH

담임목사 송태근

GBS교안

2024. 4월 첫째주.

“듣고도 믿지 않았다” (막 16:9-15)

설교 요약

1. 불신앙의 이유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과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우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했지만, 남은 제자들은 두 증인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열 한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을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아둔했기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 곧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문제가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시고, 겸손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사모해야 합니다.

2.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부름 받다

제자들의 불신앙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자력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실패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자력 없음과 연약함을 볼 때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을 단순히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부활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 받은 우리의 삶 전체로 그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은혜 나누기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 마음도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 부활을 단지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지금의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봅시다.

